

걸도는 '군공항 이전'... 광주시, 직접 무안군민 설득 나선다

무안군 4만2000여 모든 가구에 광주시장이 '약속의 편지' 발송
소음방지·개발 지원 의지 등 담은 무안 9개 읍·면 장터 순회 설명회 전남도 등과 무안 발전 토론회도

광주시가 답보상태에 있는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전남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

시는 직접적인 주민 설득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무안지역 4만 2000여 모든 가구에 광주 시장이 직접 쓴 편지를 발송하는 한편 9개 읍·면 장터를 순회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시는 또 행정기관인 전남도, 무안군을 설득해 무안군 발전 계획을 주제로 하는 대토론회 등도 구상하고 있다.

다만 광주시의 이같은 노력에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무안군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민간·군 공항 이전 사업 성공을 위한 골든 타임은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산 가덕도 공항,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등 신설 공항들이 지역 국제공항 선점을 위한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민간·군 공항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오늘 밤(21일)부터 이틀동안 무안 4만2000여 가구에 소음 영향 지도를 첨부한 '약속의 편지 1'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약속의 편지'에 1을 붙인 것은 앞으로도 무안군민과의 서신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22·23일 순차적으로 무안군 모든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 시장은 무안군민에게 직접 쓴 편지를 통해 "무안 공항은 서남권 관문 공항이 될 좋은 재목"이라며 "항공과 이용객 수용 시설은 전국 5위 규모이고, KTX가 정착하는 유일한 국제공항이 될 예정인데 매년 적자공항으로 목회두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조만간 달빛 철도가 개통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산 가덕도 공항,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면 광주·전남 항공 수요를 빼앗길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무안 공항이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도약하려면 광주 민간·군 공항과의 통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민간·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무안군민과의 직접 소통 계획을 밝힌 21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민간 항공기 1대가 이륙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무안군민이 우려하는 항공 소음과 관련한 대책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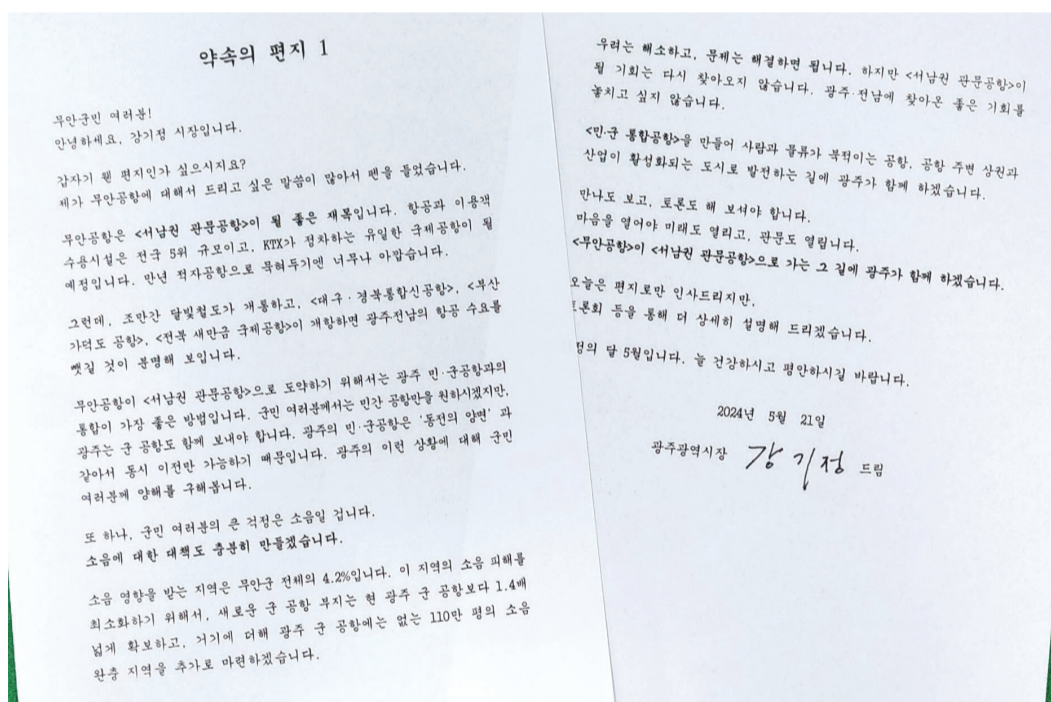
강 시장은 "소음 영향을 받는 지역은 무안군 전체의 4.2%"라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군 공항 부지는 현 광주 군 공항보다 1.4배 넓게 확보하고 거기에 더해 광주 군 공항에 없는 110만평 소음 완충 지역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약속의 편지 발송과 함께 무안 전통시장을 돌며 직접 소통에도 나선다.

첫 방문은 오는 24일 오일장이 열리는 무안읍 장터이며, 고흥완 행정부시장과 시 군공항이전본부 관계자들은 장터를 찾은 무안군민들을 상대로 민간·군 공항 이전 효과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3개읍·6개 면 장날마다 총 9차례 방문해 군민을 만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무안군에서 열린 광주시 참여 군 공항 이전 관련 행사 때마다 거센 반대시위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전통시장 소통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광주시는 무안군민 소통 설명회에 이어 민간·군 공항 이전에 따른 광주시와 전남도의 무안군 지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간·군 공항 이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무안군민에게 보낸 '약속의 편지'.

방안 등을 담은 가정 '무안군 미래 발전계획' 토론회도 구상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달 3월 8일 원탁회의, 4월 11일 2차 또는 3차 회담을 제안했으나 무안군은 거절하고 전남도는 무안군 참여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했다"면서도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진행 중인 무안군 지원 계획을 통합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무안군 미래 발전을 고민하는 통합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잇따른 아파트 부실 시공 준공 임박 현장 특별점검 국토부, 전국 23개 단지 대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라 22일부터 30일까지 준공 임박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발전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등 총 23개다.

국토부는 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건축 구조·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도 품질 점검단, 하자 삼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 구조부 하자 및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작은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인허가청인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현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정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합동 점검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7월께 시행 예정인 일반 하자는 180일 이내, 중대 하자는 90일 이내 조치하는 '사정방문 제도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라남도

완벽한 전남 여행을 위한 전남관광플랫폼

전남관광플랫폼으로 더욱 특별한 전남여행을 경험해보세요!

번거로운 버스 예약도

취향저격 숙박 예약도

현지인 추천 맛집 예약도

투어, 티켓 예약도

교통, 체험, 맛집, 체험까지 **한방에 할인**

지금 QR코드를 찍고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를 다운 받아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vailable on the
App Store